

‘신종 코로나’ 확산... 中 ‘무사증’ 일시 중단되나

제주도 “법무부와 제도 일시중지 협의 검토중”
 추가 유증상자 없어... 행사 자제 등 차단 총력
 도내 체류 우한 中 관광객 9명 등 무증상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인 대상 무사증 제도(무비자 입국 제도) 일시 중지를 법무부와 협의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합동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원천 봉쇄를 위해 무사증 일시 중지를 법무부와 협의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지역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시 중지 기간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무사증 제도는 사증 없이 중국 등 외국인이 제주도로 입국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체 무사증 입국자가운데 98%인 79만7300여명이 중국인이었다.

이와함께 도는 공항 국내선 발열 감시 카메라 설치 검토와 2차 감염 발생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중국 관광객과 직접적인 접촉이 예상되는 고위험군에 중국인 단체 여행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한 단체관광버스 기사, 여행가이드, 면세점 종사자, 요식업 종사자, 숙박업 종사자를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더불어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조정 기능 강화, 도민 참여 행사 최대한 자제 권고, 버스 내부소독 및 대중교통 종사자 마스크 배부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예방·대응수칙 2면

자제하고,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하되 마스크와 손세정제 같은 소독, 방제 등 보호용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월 5일부터 6일까지 양 행정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시민과의 대화’가 무기한 연기 결정됐다. 3월 이후 행사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 31일까지 도내 운행중인 전 노선버스 881대에 대한 내부 소독이 실시된다. 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때까지 도내 버스터미널 내 손소독기 점검 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철저한 위생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도내 유증상자 3명 모두 음성 판명 이후 30일 오전 9시까지 도내 추가 유증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한에서 입국한 내국인 전수조사 대상인 제주도민 6명 중에서도 유증상자는 없다.

또 도는 도내에 머물고 있는 중국 우한 출신 중국인 관광객 9명과 관련 입국 거부로 인해 제주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도됐으나 제주총영사관 확인 결과 모두 자국 상황 등을 감안해 본인 의사로 지속 체류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4명은 지난 28일자로 잠복기가 종료됐으며, 나머지 5명도 증상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도는 출입국외국인청과 협조해 앞으로도 이들의 이동제한 등 집중 관리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2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국내 확진자는 여섯명으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 '신풍경'... 교실 졸업식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는 각 반에서 방송으로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후폭풍 최소화 방안 공동 모색

제주도의회, 어제 도 일자리경제국과 정책 간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 속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와 제주도가 제주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은 30일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올해 첫 정책간담회를 갖고 2020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추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제주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 간담에서 고용노동부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제주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재검토와 지역 경제의

위축에 따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제주도정 등 공공에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발생해 도민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예산의 조기집행 등 내수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와 의회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경제적인 정책간담회를 추진해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제주도가 계획을 수립해 추진 예정인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1(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산업, 미래산업, 건

오은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불합리 행정규제 공개 모집 합니다”

도, 읍·면·동 등 통해 접수

제주도는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은 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제안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 제안자 1명에게는 시상금 100만원, 우수 2명 각 50만원, 장려 5명 각 30만원, 입선 5명 각 20만원이 주어진다.

송은범기자

세화 저류지 기능 보강

제주시, 1427t 규모로 조성

제주시는 침수피해 예방 및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세화 재해위험 저류지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9억6000만원을 투입해 1427t 규모의 저류시설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자연 상태의 저류지를 개선하여 저류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여유 부지 내 주차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침수피해 및 주차난 해소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까지 제주시는 세화저류지 기능보강 공사 실시계획용역을 완료했고, 2020년도 사업비를 확보해 분할착량 및 계약심사 등을 통해 올해 1월~2월중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등을 거쳐, 8월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평상시에는 세화 초등학교 주변 인구밀집지역 주차난을 해결하고,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주택 및 도로침수 피해 예방 등을 통해 주민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고대모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근하新年

2020庚子年
 웃음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농협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NH 농협

농협은 다양한 농업·농촌 지원사업과 고객 서비스로 농촌도 국민의 삶도 더욱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농협이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귀포시농협운영협의회 회장 유봉성 **농협서귀포시지부 지부장 현학렬**

대정농협협동조합장 이창철 안덕농협협동조합장 유봉성 중문농협협동조합장 김성범 서귀포농협협동조합장 현영택 효돈농협협동조합장 백성의
 위미농협협동조합장 김영근 남원농협협동조합장 김문일 표선농협협동조합장 고철민 성산일출봉농협협동조합장 강석보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장 김용관